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293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0. 12. 28(월) 14:00 ~ 16:50
- 장 소 :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박경주 위 원
 유은선 위 원
 이시백 위 원
 이원재 위 원
 이희경 위 원
 전고필 위 원
 정유란 위 원
 조기숙 위 원
 홍태림 위 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제29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간담회를 먼저 진행했기 때문에 2부 순서처럼 되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많고 정기공모 의결과 같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를 부득이 영상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집중을 요구하는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93차 전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1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고요. 그 의결안건은 2021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그 외 보고안건으로는 2020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보고를 비롯해서 총 6건이 보고사항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그 외에 논의사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11인 위원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11인 위원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92차 서면회의에는 3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조금 추가해 드리면, 849호, 850호는 별도의 의견 없이 의결이 되었고요. 851호 안건은 박경주 위원, 이시백 위원, 이희경 위원님께서 관련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제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1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정기 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조미숙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릴 텐데요. 본청 위원회 회의실의 오디오 시스템이 좋지 못해서 2층 중회의실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조미숙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사업 결정의 건이며 제안사유는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결정현황입니다.
지원신청건수 3,795건에서 선정은 1,156건으로 30.5%를 선정하였습니다.
결정액은 신청액 877억 6,900만 원 중에서 213억 3,000만 원을 결정하여 24.3%를 지원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은 9월 25일 추진된 286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을 걸쳐 수정의결안을 반영해서 2021년도 정시공모사업 추진계획을 10월 8일에 확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 8일 사업설명회를 네이버TV,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신청접수는 10월 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문화예술향유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경우 11월 2일까지 26일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예술창작지원 사업에서는 976건이 신청되었고 전년에 비해서 173건이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력육성 사업에서는 1,055건으로 2020년보다 295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예술향유 사업은 1,764건으로 2020년보다 565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주요 개선 내용입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예술현장 위기대응을 위한 사업개편

사항 중심으로 구성하여 사업별 지원신청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신규제도로는 영유아 돌봄 비용을 편성하도록 하였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심의기준을 조금 더 보완하여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결과 발표를 지향하였습니다.

심의위원 구성 및 위촉절차입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시스템 운영을 통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였고 지원심의의 투명성 및 참여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였고 전문성 및 평가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전담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사업은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또한 심의위원 섭외 시 최종결정 절차를 폐지하였고 적격자 지정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심의방식입니다. 참여성, 전문성, 장르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심의제도를 적용하였고 심의진행 전 과정에 쌍방향 소통방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정시공모 22개 사업의 전수 검토제를 추진하였고 온라인 채점 제도를 전면 적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대비해 온라인 심의제도 도입 및 온라인 심의 참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추후 별도 공모 시 코로나19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공정심의평가관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의결과 안내입니다.

심의결과의 수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2차 이상 지원심의 사업의 경우에는 중간 심의결과 발표를 진행하기로 하고 최종 버전에 있어 심의결과 발표 시에 총평 등 세부 사항은 그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

지역 우대를 위한 최소 보장제를 적용하여 지역 불균형 지원 해소를 위한 제도로 적용 가능 사업으로 수도권·지역 신청률 대비 선정률을 가능한 동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준비율은 창작 분야 공모사업의 경우 28%이고 향유 분야에 대해서는 35%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사업은 13개 사업입니다.

적용결과 창작분야 선정건수 총 618건 중 지역이 216건으로 39.95%이고 향유분야 423건 중에 지역이 147건으로 34.8%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2020년도 현재 총 4차를 진행하였고 총 1,522명의 심의위원 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해촉과 정지를 제외한 1,484명이 분야별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구성 방법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위원 후보단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별 심의 적격자는 장르별 위원과 위원장이 각각 필요인원의 2배수 이상을 구성하여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섭외하였습니다.

전담심의위원회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과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정시공모사업은 총 22개로 심의위원회를 28개를 구성하여 심의위원 총 165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심의위원 구성경로는 10쪽과 11쪽의 내용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심의회의 추진 결과는 12쪽과 13쪽의 내용으로 같음하겠습니다.

22개 정시공모 내역사업은 14쪽과 15쪽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사업별 수도권·지역별 신청률 대비 선정률 현황은 16쪽과 17쪽으로 같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지원심의 결과는 12월 28일 발표 예정이고 발표는 예술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1차 선정 대상자에 한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정산, 부적격자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결과 발표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를 안내하겠습니다.

결과 발표 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영주 본부장이 올해 정기공모와 관련하여 조금 보완하겠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8페이지에 있는 신규제도 안내 중에서 올해 영유아돌봄비를 처음 편성 했습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돌봄비를 편성하도록 했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때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간략히 안내 했습니다. 현재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간략히 압축해서 예술인들께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1월 중순 정도에 오리엔테이션을 시행하는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역 우대를 위한 최소보장제를 올해 역시 도입했습니다. 창작분야 같은 경우에는 28% 정도의 지역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보장제를 적용해서 35% 정도 지역에 선정을 했고요. 향유분야의 공모사업은 35%를 지역에서 지원했는데 선정결과는 34.8%로 약간 미달되기는 했지만 최소보장제를 적용하는 목적을 거의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항으로는 올해 심의제도에 대해서는 2가지 그리고 영유아돌봄비 등 3가지가 올해 지원심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의결을 하게 되면 1,156건에 213억 3,000만 원의 지원금을 결정하고 의결하는 절차인데요. 24일 이전까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렸지만, 오늘 직접 논의를 통해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농사와 다름없는 안전인데요. 자유롭게 본 안전에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 부서의 직원들이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에 분산해서 대기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어제 보내드린 의견서에 적시를 하기는 했는데요.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 사업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올린 세부 내역에서 지원 트랙별. 그러니까 이번에 3가지 트랙이 있었는데 트랙별 지원 현황, 선정 현황 그리고 장르별 선정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오전에 자료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했고요. 제가 이 내용은 위원 단톡방에도 올려서 자료를 공유한 상태입니다.

제 질문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장르 통합심의였는데요. 개인 비평을 제외하고 단체의 선정 18건 중에서 춤 장르가 8개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연극은 5건, 음악 2건, 다원 3건입니다. 개인 말고 단체에서 전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평 분야가 열악한 상황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열악한 장르일수록 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심의를 했을 때 이렇게 특정 장르에서 독식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썼는데요. 지원결과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용 쪽은 개인 2명 말고도 8팀이 선정돼서 100% 선정이 되었어요. 이것은 아마도 장르에서 심의하시는 분들 간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합의가 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100%인 반면에 다원은 50%였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8건 중에 3건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고 만약 저희가 계속해서 통합심의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통합심의를 할 때 장르 간의 불균등한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책을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인용해 보면 “특정 장르에서 평론가들이 다수의 매체에 중복 거론되어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오랜 역사를 가진 비평지들이 실효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보다 과거 형식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한계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춤 같은 경우 8팀이 고스란히 된 것이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런 것이 심의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답변을 준비하고 있으니 답변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보내주신 자료는 어제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통합심의를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고 계속 통합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3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인해서 장르별로 나뉘었을 때 행정적 비효율성 그리고 비평이 장르별로 활동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통합심의를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도 좋겠다는 판단으로 이번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특정 장르의 독식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연극 2명, 무용 2명, 전통 2명, 음악 2명으로 안배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다원은 일반 공공기관에서 섭

의를 해서 9명으로 구성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암묵적으로 저희도 간사 역할을 합니다만, 암묵적으로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장르별 안배 등을 의식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꼭 자기 장르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를 넘나드는 토론을 하면서 의견이 분분한 점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특정 장르의 독식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만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단체의 무용 쪽은 아시겠지만 전문지 4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춤’, ‘몸’, ‘댄스포럼’, ‘춤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는 전문지라는 것이 다소 무용 쪽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무용 쪽의 선정률이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의 총량이 10억 원 이상이 되지 않는 한 현행의 작은 예산 규모 안에서 심의의 효율성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우려하신 장르의 독식 현상이 올해는 유독 춤에 집중된 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장르의 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사성이 있는 전문지들이 전체적으로..... 총평을 보시면 일부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매체로서 지원의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매체가 발간된 습성들, 관성적이고 매너리즘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년 심의가 끝나면 환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런 게 안 되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만큼은 공식적인 총평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제기를 해서 단체들이 분발하고 사업 개선에 환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다는 코멘트가 있었고 그것을 총평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부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단체들에게도 공유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간담회 같은 것도 하면서 매체 운영의 방향을 전문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고요.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 매체가 타성에 젖지 않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심의 총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특정 분야와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전문지 부분은 거의 고정적인 지원 성격이라 앞으로 사업유형에 대한 재설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선정을 하되..... 현장에서는 지원이 없으면 폐간이 되는 부작용이 같이 애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신 작년도 수준 대비 점진적으로 감액을 시켰고 그러면서 단체 스스로도 재정 확보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락처 시킬 수 있는 방안의 과도기적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경 위원

- 감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르 통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 심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 결정액을 보면 장기적으로 삭감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개선점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비평이 열악한 분야들, 그런 장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쿼터라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

게 해서 내용이 좋지 않은 비평지들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겠지만 기준에 잘 되던 것에 비해서 열악한 장르들이 진입하는 것을 통합함으로써 장벽을 높이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고민하면서 이 사업을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이 부분은 단순히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던 대상자들을 심의를 통해 선정하는 문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획적으로 취약한 비평을 짐작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가미돼야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일단 비평연구지원사업에 국한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경주 위원

-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원신청액 대비 지원결정액에서 어떤 파트의 선정된 단체를 보면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했을 때 세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기준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 문예위의 입장은 “감액하면서 자립시킨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공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액을 시키면서 자립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자립할 수 있다.”라는 게 있나요? “감액하고 자립해라.”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예술 장르의 비평은 대중적으로 읽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창작지원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경주 위원님이 지금 2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양한성 부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비평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 신청액을 다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부 지원이기 때문이에요. 장르마다 심의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공연파트는 주로 표준화시키는, 지원신청액의 70%나 80% 수준으로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맞춰가면서 사업계획마다 개별 예산 항목을 들여다보면서 현장에서 지불하는

사례비의 적정단가나 실제 홍보 등 불필요한 사업 계획에 비해서 과다하게 계산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감액을 적용시킨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대략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체들과의 1 대 1 면담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현장의 자문도 받으면서 크게는 사업의 디자인에 대한 재설계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장르별 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나누면서 현장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재부에서도 비평뿐만 아니라 연속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몰제 등을 운운하면서 지원 중단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의 외적인 압박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립도라고 선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 지원금에 100% 의존하는 구조가 합당한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같이 얘기가 되면서 현장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한 지점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사업 개선으로 유도를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장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연예술본부장이 조금 보완을 해 주시죠.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답변 중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금이 배분되었느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양한성 부장이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장르별 책정된 예산에 대한 배분이 있고, 양한성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관성적으로 준 부분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장르별 비평지는, 예를 들면 ‘춤’이라든지 한국연극협회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연극’ 이런 부분은 많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개인 비평까지 활로를 넓혀 왔습니다만 타 장르와 비교했을 경우에 비평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TF활동에서 언급을 했듯이 다시 디자인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의 결과가 관성 지원으로 나타나고 장르 편중되어 있는데 어느 장르에는 신청한 단체 모두가 지원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 지원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현상도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신규 지원을 막는 효과로 우려되는 바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감액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무 부장의 답변은 계획의 과도함이라든가 이것은 적절하지는 않은데 예산상의 부풀림, 이런 부분들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런 것을 근거로 적정액을 산출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인 이른바 비평이라고 하는 영역의 자생력, 자립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넓히고 진흥하고 향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범위를 확대하면 비평연구지원활성화라는 게 아르코 혁신(안) 23개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 한국 예술의 구조적 불안함 속에는 과거에 비해서 왕성한 비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양질의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지원기구가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가 늘 있어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의 결과는 이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르코 과제 23개 안에 들어가 있는 비평연구지원활성화 관련해서는 대책과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 지원사업을 마치고 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개선안을 내도록 했으면 합니다.

본부장과 부장 모두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결론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주 위원

-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서울문화재단 회의에 다녀왔는데 그 얘기를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원래 저희가 하는 것처럼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선정방식과 별개로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1차, 2차, 3차에 걸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괜찮다고 생각된 분들에 대해서만 심의위원 풀에 넣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1,52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문화재단은 저희보다 지원 예산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1,700명 정도의 심의위원 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문화재단과 우리의 차이는 일몰제라고 해서 몇 회 심사를 하고 나면 잠시 쉬는 상황인데 거기는 계속해서 누적되어 1,700명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1차로는 재단에서 인터넷 검색 등 자료 정보 검색을 통해서 걸러내고 장르별로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알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2차 검토를 하고 다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활동을 해 주셨던 분들을 모셔서 3차 필터링을 해서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디어가 저희한테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가 사실 4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성희롱·성폭력에 특정해서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지난번 온라인 창작지원을 할 때 한예종의 모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돼서 심사를 다시 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이런 식의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심의위원에 대한 검토가 저희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비평연구활성화지원과 관련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백 위원

- 문예지발간도 지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박종관 위원장

- 우선 비평연구활성화와 관련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강운주 위원님께서 공유해 주신 내용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전에 두 분께서 질의하시고 실무에서 답변하고 제가 소략하여 결론을 말씀드렸는
데요. 이 정도로 논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이희경 위원님, 이 정도로 논의를 하면 될까요?

○이희경 위원

- 예,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운주 위원님께서 공유해 주신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타 기관의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예지 발간과 관련한 이시백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보내주신 자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를 했는데요. 문예지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대훈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상당한 정평을 받는 이른바 메이저 문예지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탈락이 되었는데요. 앞서 접수하는 과정에서도 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메이저 출판사들이 발간한 문예지들이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것과 맥을 같이 해서 공교
롭게 모두 탈락한 것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한 심의위원들의 결
정이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 과정에 대해서 공유할 이야기
가 있으면 정 부장님께서 실무자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호당 지원금액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탄력적으로 적용되면서 애초에
40번 정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훨씬 더 많은 단체들을 지원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당 지원 금액이 400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소 지원 금액을 호당 400
만 원으로 설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단체가 모두 38건이 나왔는데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수 사전 검토를 하고 토론과 채점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
가 공교롭게도 매년 선정이 되다시피한 문예지가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심의평에 기재했는데요. 간략하면 말씀드리면 “문학 생
태계의 다양성 측면에서 고심한 결과다.”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심의위원들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우려되는 측면은, 말씀하신 대로 신청 단계에서

일부 메이저 문예지들이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행정적으로 결격 처리가 되었고요. 심의 결과가 공교롭게도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되는 문예지 측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일정 정도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의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그런 논란이 우려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또 심의과정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논란이 민원이든 어떤 형태로든 제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심사록 등 여러 가지 근거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주요 단체가 배제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근거를 말씀드리기에는, 만약 문예지사에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밝히라고 하면 답변하기가 궁색한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고 심의기준 외에 심의평에 게재된 내용이 수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윤주 위원

- 위원장님, 아까 이원재 위원이 말씀하시려다가 못했는데요.

○이원재 위원

- 의제가 지나서 생략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지원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차분히 점검해야 하거든요. 지금 문학 쪽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명확한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해 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심의위원들에게 전폭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결과가 올라왔을 때 그 결과가 타당하면 위원회가 의결해서 심의를 확정하는 것인데요. “타당한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 “마땅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시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심사 결과가 나온 지 오래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검토가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보완해 주세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메이저급의 출판사들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반복해야 할 때까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결과 심의평에도 있는 것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금액은 늘려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원 금액을 줄이면서 심의점수 밖에 있는 메이저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없지 않으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심의 점수만 놓고 통과를 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까지 반영된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것은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양쪽 모두 핵심을 잃어버리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이저 단체가 배제된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어요. 이를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한국문학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기준점을 명확하게 정하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의도한 바는 없지만 메이저 단체가 결과적으로 배제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심의의 타당성 문제를 점검했는데 역시 심의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사를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갖고 메이저 단체가 배제된 명확한 근거가 되느냐의 문제는 제가 이시백 위원님께 거꾸로 여쭙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시백 위원

-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의도와는 달리 공교롭게 접수 과정과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성과가 있었고 문단에서 정평 있는 문예지들이 공교롭게 탈락되었으며 접수에서 이런 누락된 것이 맞물리면서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르코가 선정기준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 라고 그 쪽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해명할 근거나 과정 등을 꼼꼼히 챙겨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에 대해 꼼꼼하게 봤는데 상당히 관록도 있고 왜곡되게 할 분들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채점을 했는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사전 논의를 했는지? 이번에 이것을 선정할 때 공감하는 과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은 저희가 사전 전수검토제라고 해서 각 신청대상 단체들의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하고 평가의 근거들을 적시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토론 자료로 운영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모두 모여서 오프라인에서 토

론과 심의 등 채점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각 개별 문예지들이 “우리 단체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른 단체들과 비교해서 얘기해 달라고 할 경우, 이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명료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마 심의위원들께서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당 지원 금액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주던 것을 400만 원으로 최소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예년보다 선정된 단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7페이지를 보시면 심의평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문학 발전과 향유계층의 확대에 애쓰고 있는 기존 문예지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힘든 상황에서 분투하는 잡지들과 지역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잡지들의 위상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학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콘텐츠의 우수성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심사위원들의 깊은 고심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심의기준을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심의기준에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발전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해당 문예지들이 뭔가 저평가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심의과정에서의 큰 틀의 논의는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지요. 그게 심의 위원들 간에 공감의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원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결과를 환류하고 검증 받음으로 해서 투명성을 더 높인다는 원칙은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예술위원회 6기와 7기를 넘나들면서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문학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낸 결과를 저희 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아까 정대훈 부장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설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락된 곳을 저평가하거나 각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공모 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공모심사를 한 것이고 공모 심사위원이 참여해서 운영한 것이고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그룹을 배제했다거나 그런 다양성을 가진 게 없는 심사결과라고 저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결과가 심의의 공정성과 상관없이 기존에 오랫동안 문학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탈락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학 생태계 안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정책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은 역사적 문예지를 지원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문예지를 수평적 선상에서 심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루핑으로 판단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시백 선생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이번 심사에는 기존과 다른 게 있었나?”, “우리가 다양성을 강조했다거나 새로운 곳을 발굴하려고 했다.”라는 지원의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게 없다면 설명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어쨌든 투명한 경쟁에서 탈락했다..... 왜냐하면 선정된 데가 평가절하 되는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평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경쟁으로만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학 생태계의 지속성이나 또 다른 다양성 측면에서 기존 문예지들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찾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문제가 없이 진행된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게 되면 이상해지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런 맥락에서 문학지평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낸 결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이원재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왜 강조했느냐 하면요. 마치 우리가 이번에 특별하게 다양성의 지표 등을 넣지 않았는데 그것을 강조하면 원래 받아야 되는 문예지가 떨어진 것처럼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장 올해만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2년 전부터 종이접기 외에도 웹진이나 디지털매체, 플랫폼 형태의 발간물들도 계속해서 지원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는 와중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창간된 문예지뿐만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에 창간 예정인 문예지들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오히려 정책 쪽으로 의견을 드리면 문학 쪽은 잘 모르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일텐데요. “오래되고 전통이 있으니까”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들을 동일선상 경쟁에 넣어서 하는 것 자체가 생태계에는 좋지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술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런 분야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독점이 될 수가 있죠. 훨씬 많은 전문성이나 훨씬 많은 커리어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공모사업 안에서의 먹이사슬을 가질 수 있고요. 후자는 이번 경우처럼 그 가치가 무력화 될 수가 있잖아요. 공정한 경쟁을 했지만 어쨌든 어려울 때부터 생태계 역할을 해 왔던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느냐? 저는 지원사업의 정책적 접근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공모자체의 프로세스에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을 과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더 많이 살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이시백 위원

- 예,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은 저희가 위촉한 심의위원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 결정된 결과라면 그것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번복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유수의 잡

지들이 접수부터 선정에서 공교롭게도 오해와 논란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하고 혹시라도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챙겨 보자. 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의결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들을 공유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우수문예지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목적 자체가 문학창작활동의 중요한 토대인 문예지의 발간 지원이고요. 문예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원고료를 지원해서 폭넓고 치우침이 없이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정당한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기일을 넘긴 문예지가 민원을 제기하고 문단 내에서도 작게나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혹시라도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준비 또 의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해서 공유의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논의를 종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주어진 여건 안에서 지원사업의 구조개선을 시도할 경우에 창작지원금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구조개선의 시도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이시백 위원께서 정리해 주신 것을 최종 의견으로 하고 이 사안은 여기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논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저는 간단한 것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강운주 위원님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심의위원 풀을 구성할 때 성희룡·성폭력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술위원회 같은 경우 심의위원 풀을 구성하는 것 외에도 심의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고 나서 부서장이나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들을 봤는데 거기에 성희룡·성폭력 관련된 평가지표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정심의부 쪽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회의 114쪽에 보면 연수단 지원과 관련된 선정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각분야의 한 단체가 천안과 경기 등 2곳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지원서를 2개를 내서 2개가 다 되었는지? 아니면 해당 단체가 하나를 냈는데 2개로 쪼개서 1명씩 지원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홍승욱 원장이 답변을 하세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회의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즉시 대답이 어려우시면 일단 이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죠.

○이희경 위원

- 이 사안도 제가 미리 의견서에 보내드린 내용인데요. 신나는 예술여행 지원심의 결과를 보면 사업개요와 경과는 굉장히 짧게 되어 있고 선정된 단체만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심의건수가 많아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이 아니라도 심의경과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과 달리 지원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유형별, 장르별 지원신청과 선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서에서 2020년과 다르게 지원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원래 바꾸려고 했을 때는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개편의도대로 실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부서 차원에서 분석하셔서 그것에 대한 정리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이한신 지역협력부장이 대기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희경 위원이 질문한 심의 개선 사항의 효과나 의도 부분까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의도와 분석내용 보고를 전체위원회에 하더라도 개편해서 어떤 것을 기대했고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략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한신 지역협력부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이한신 지역협력부장

- 개편내용과 기대효과에 어느 정도 부합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개편방향은 신나는 예술여행이 향유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향유자의 연령과 특수성에 따라서 13개 유형으로 찾아갈 곳을 세분화 했고요. 13개 유형별로 지원심의를 일일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령과 특성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국민일반, 특수시설 등 3대 영역으로 심의분과를 구성했고요.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한 현재까지 심의총평에서 심의위원들이 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첫째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기 때문에 수요자를 가장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장르적 관점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하지만 수요자의 수용도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인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적당한 것인가를 가장 우선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사업유형을 단순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의 유형별로 수요자들을 세분화 하되 사업의 방식은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을 해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고요. 그 결과 전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 수 선정이 284개였는데 2021년도는 423개를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전년 같은 경우 축제형이나 지역자원연계와 같이 1건 당 예산액이 큰 사업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모니터링 했을 때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예산 투입만큼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사업들도 통폐합을 해서 간결화 했기 때문에 예술단체는 많이 뽑고, 많은 단체들이 각 시설유형별로 수요자 관점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형태로 올해 바뀌었

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료 236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 과정과 자택에서 심의위원들이 전수검토해서 보내준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희경 위원님께서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희경 위원님, 간략하게 이한신 부장의 보고를 받았지만 핵심은 모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13개 유형을 미리 정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되 13개 모두 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국민일반, 아동·청소년, 특수시설 등 3가지로 구분지어 심의를 진행하고요. 이른바 대형 지원을 지양해서 다소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예산투입 효과 등을 보완하여 제고하는 형식의 심의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대비 명백한 성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될 필요가 있어서 부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승욱 원장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홍승욱 아르크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준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흥태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체는 각각 경기와 천안에서 따로 지원신청을 했고요. 그 심의결과 각각 1명씩 선정이 되어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흥 위원님, 추가 질의가 있으면 하시죠.

○흥태림 위원

- 심의위원들께서 그것에 대해 따로 질으신 부분은 없는 것이죠?

○홍승욱 아르크예술인력개발원장

- 일단 저희가 지원신청 공모사업 단계 안에서는 공간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다른 상황 속에서도 대표가 같은 상황이라도 지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사안 이었습니다.

○흥태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죠.

큰 결정사항입니다만, 사전에 자료를 보내 드리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전체를 세세히 검토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기공모사업이니만큼 의결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사전에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문자로 고지하는 부분은 역시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자로 가·부를 알려주는 것이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올해도 제도개선을 못하였고요. “결과발표를 했으니 누리집에 가서 결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일괄 발송하고 결국 최종 당락 여부는 누리집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십시오.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제852호 2021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10분만 쉬겠습니다.
충분히 쉬고 다시 보고사항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개의 보고안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보고안건 6개 중에서 공모 결과가 2개고요. 1개는 창작지원사업 운영계획(안)입니다.
그리고 3가지는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입니다.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는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고 앞의 3개에 대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무처장이 설명한 대로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를 포함하여 6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공연기반부 이종국 부장이 첫 번째 보고안건을 보고드리고 예술극장 등 보고 기관에서 각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부장은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저는 대학로예술극장 지하의 스마트워크센터에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했는데요. 저희 위원회 회의자료로는 23페이지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2020년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페이지 첫 번째에 있는 공모 추진 경과는 지난 8월 28일 위원회 전체회의 때 2020년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문체부와 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마쳤고요. 지난 11월에 15일간 접수를 받아서 총 178건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17개 광역문화재단의 홍보 협조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모를 통해 주관처를 선정해서 진행했을 때 대비 2.6배의 지원신청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특정 장르에 대한 쏠림 현상이라든지 비수도권 지역의 참여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특이한 것은 저희가 다원예술분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의 영역으로 다시 복권을 시켰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다원예술을 포함해서 각 장르별 위원님들께 심사위원들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천을 받았던 심사위원들 구성의 3대 원칙을 대비해서 최소한 같거나 더 높게 심의위원을 구성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가 심의를 진행했구요. 비록 체육진흥기금이지만 저희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사업에 준해서 지원심의 운영에 관한 처리 기준을 모두 준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사업의 주 참여대상이 원로분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내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통상 10% 예비 선정하는 것을 20%까지 선정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원심의 추진 결과는 최종적으로 28건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예술 분야가 12건으로 가장 많고요. 기존에 주관처를 통해서 선정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연극분야가 절반 이상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용과 다원예술이 1건씩 선정되면서 각 장르별로 최소 1건 이상씩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부 명단에서 보시겠지만 이희경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원로예술인의 특성상 전통예술분야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월륜춤보존회’라든지 전통예술로 표기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무용에 대해 원로들이 참여하시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은 1건이지만 실제로는 1건에 지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음악분야에서도 “사업명만으로는 원로예술인들의 활동들을 재조명하는 취지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전수검토를 마쳤고요. 심사위원들과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장르 통합심의를 했기 때문에 서로 타 장르에 대한 의견들을 교류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원로들의 참여 비중이라든지 애초의 기획의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신청건수 대비해서 특이한 것은, 작년에는 수도권이 74%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비수도권이 54%로 최종 심의과정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신 활동들이 주요 선정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고필 위원님과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수도권, 특히 대학로 중심의 특정 원로 사업이 아니라 전국 규모로 원로에 대한 지원수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구요. 저희가 17개 광역문화재단들과도 2021년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8개 광역문화재단들이 저희와 유사한 원로 대상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선순위의 해당 지역에서 반영이 안되었던 지역에서 굉장히 큰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이라도 재단의 정규사업처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는 총 선정된 28개 사업에 대한 현황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붙임2에는 지원심의 총평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감사부에서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과 공정심의부에서 주신 것을 반영해서 비주얼 적으로 시각화 한 정보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 전체적인 비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할 내용과 가부 여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역문제들은 예년과 많이 다른 형태인가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지역은 작년 수도권이 7이고 지역이 3이었다면 올해는 서울이 4고 지역이 6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7이 수도권이라면 올해는 4이고 지역이 3이었다면 올해는 6입니다. 그래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장르별로는 골고루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예비'라고 통지가 같이 나가는 건가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그 부분은 이번에 실무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이종국 부장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문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비 단체는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발생이 되고 나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별도로 연락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의견을 주십시오.

○전고필 위원

- 이전에 연극협회에 맡겨서 했을 때에 비해서 공연기반부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뀌어서 설계를 하고 지역을 직접 탐방하면서 예술인들을 만나 "이런 취지로 전개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이 받아들인 것은 굉장히 고맙고 소중한 기회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만큼 올해 홍보도 많이 되고 특정 장르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게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은 사무처나 공연기반부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것도 본부장이 답변을 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원 사업이 우량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연극협회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나왔던 얘기가 “연극 쪽에 너무 치우쳐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이 너무 홀대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저희들이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고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년에 비해서 지역이 2배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양점이 있다고 하면 원로예술인공연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진부터 중견 그리고 원로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원로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기금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전시나 문학 쪽으로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원의 확보 및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부장도 혹시 보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예, 이희경 위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의견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지역만 많이 뽑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원로 선생님들의 기록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임주연 기록원장하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고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단순히 공연만 하고 끝냈던 사업이 아니라 활동 기록물들과 그분들이 갖고 계셨던 기록물에 대해서 기증을 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기록원의 아카이빙 작업에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를 같이 하겠다는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이희경 위원

- 좋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7페이지의 지원선정 내역을 보면 전통춤 그다음에 여성 국극이 들어가 있고요. 마당 놀이도 있고 창작오페라도 있습니다. 연극도 몇 편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소재로 한 ‘영남의 소리, 춤’ 이런 것들도 신선하고 신파극이 있습니다.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신파극이 있고 그냥 탈춤이 있고 창작관소리 등이 있어서 공연예술 안에서 굉장히 넓은 장르의 선정결과가 지역의 다양성과 함께 확보된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진일보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으시면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 지원심의 결과보고는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고필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2020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결과보고입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이 참석중이신가요?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 2021년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의 추진배경은 저희 극장에서 공공극장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다양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권고에 앞서 준비를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번의 주요 개선 사항을 보시면 아르코대극장, 소극장 등 4개 극장에서 총 200일의 대관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르코극장 40년을 맞아 대표적 공공극장 역할을 통해서 대관극장으로서 공연단체와 확고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기획공연 '아르코파트너'를 폐지하고 각 지원 사업의 공연 일정 등을 조율해서 2021년에는 보다 많은 단체들과 함께 협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관일수를 늘렸습니다.
또한 올해 조금 달라진 방침으로는, 이것도 권익위의 권고사항인데요, 진입장벽을 낮춰야 하고 개별 공연장 조건에 합당한 공연들이 들어올 수 있게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각 공연단체들의 공연이 취소되고 딜레이 돼서 저희 대관 일수가 늘어난 만큼 접수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36.2%인 총 200일의 대관 일수를 증가시켰고 그에 맞춰서 사업의 취지나 방향성을 정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인권과 안전의 가치 내재화를 위해서 대관의 필수 이행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 관련 그리고 위계 폭력과 관련해서 대관을 할 때 지원신청서의 서명 란과 이와 관련한 필수 이행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고 일자 자체를 10월 30일부터 40일 이상 공고를 띄우고 접수일자를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해서 많은 단체들이 공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수 결과를 보시면 전년 165건에서 261건으로 총 96건이 증가한 상태로 58.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경과를 보시면, 저희도 기본적으로 예술위원회 심의 풀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극, 무용 장르별로 1차 심의를 통해서 2차 통합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박스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차 통합심의는 1차와 2차 심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각 장르별로 심의위원 중에 호선을 통해서 통합심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최종 심의결과는 총 261건의 접수 중에서 연극 30건, 무용 61건, 다원 3건으로 총 94

건을 선정하였고 전년 50건을 선정한 것에 비해서 46.8%가 증가해서 44건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연장별로 저희가 올해는 ‘가’ 29건, ‘조정’은 7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65건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정’ 65건으로 해서 총 94건을 선정하였는데요. 조정이라고 하면 공연장, 예를 들어서 “공연 조건이 똑같은 아르코대극장과 대학로대극장을 변동할 수 있다.”라고 신청하신 신청과 공연일자 조정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일정 조정 등을 협의해서 결정은 사무처에서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께 허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허락을 받아요?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심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공연단체가 신청할 때 “공연장을 변동할 수 있다.”, “공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박종관 위원장

- 공연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극장을 운영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 그래서 공연단체와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에게 일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연 건수는 표와 같이 신청 대비 261건 대비 94건을 선정하였고요. 전년 50건에서 94건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표를 보시면 연극이 건수로는 적다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일수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연극이 51% 정도입니다. 이 최종 심의결과는 뒤의 결정 내역서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가’, ‘조정’, ‘부’ 등의 3가지 항목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역서는 저희가 대관심의결과 내역과 심의위원 명단, 심의총평 등을 1월 18일 월요일 게시할 예정인데요. 오늘 보고를 마치면 각 단체별로 조정이 필요한 곳은 전체 전화 및 연락을 드려서 조정(안)을 서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재공지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이지만 극장을 지원한다는 것도 엄연히 지원 사업이므로 의견과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고요. 담당자가 대기하고 있으니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단순한 질문인데요. 단체들과의 날짜 조정 같은 것이 예년에는 크게 무리 없이 조정이

되었나요?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 조정을 많이 해 주셔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워낙 건수가 많고요. 지금 심의 총평에도 가장 큰 것이 공연장 조정과 일정 조정이 전년에 비해 경합이 많았고요. 저희가 총 815일 대관이 가능한데 790일 정도를 대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씩 겹치는 것은 앞뒤로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공연장과 공연일자의 미세한 조정. 그리고 최대한 많은 공연을 담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비어있는 데로 보내기도 해서 공연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최대한 많이 공연장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도 마찬가지로 질의인데요. 100% 조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인지가 궁금하기는 해요.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년에는 모두 조정을 완료했는데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난항을 예측하고 있지만 최대한 단체들에게 대관을 해 드리는 것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단체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소요 790일에 815일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니까 최대한 공연단체의 편의를 제공하고 존중해서 지원범위에 들어간 단체들이 모두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의견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아르크·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결과보고는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사항은 2022년도 창작지원사업 운영계획(안)입니다.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할 텐데요. 담당자인 서유미 과장도 함께 회의실에 대기하고 있으니 먼저 보고를 받고 나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56쪽입니다.
 사업혁신TF의 창작사업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추진방법·환경 분석 관련해서는 이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같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중점 추진 방향과 추진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 방향으로 “재난 상황, 불공정 관행, 성폭력 등 위기로부터 안전한 창작 활동을 지속시킨다.”,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 예술 분야 생존력을 강화한다.”, “예술생태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예술의 탄생과 확장을 지지한다.”, “현장 중심 기관으로서 예술현장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방향에서 각 분야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그룹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예술분야는 “예술창작지원을 통해서 터전을 튼튼히 한다.”, “다양한 증진이나 국제교류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예술 영역을 ‘넓게’한다.” 그리고 “청년예술가지원이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그래서 예술가의 미래를 든든하게 한다.”라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57쪽입니다.
 그래서 예술 터전을 “튼튼히”의 창작 환경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창작일터 만들기”라는 워딩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2021년도 창작지원 예산이 2020년 대비 18%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작지원 예산은 계속해서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륨 자체를 키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술위 사업에서만큼은 지역문화재단의 사업과 달리 집중 지원을 통해서 가급적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규모를 상향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가 조사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서 이런 지원금을 계속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창작 일터를 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 고용보험에 대한 문제, 불공정에 대한 문제, 성폭력 예방에 대한 문제 등을 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서 현장에 확산시키고 현장에서 예술계의 자발적 움직임은 전폭적으로 계속 지지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공연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이러한 현장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체계 관련해서는 “마음껏 창작하는 여건 갖추기”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온 문제들이 어떤 프로젝트 결과 중심의 지원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정과 활동으로 전환을 하고 단년도 지원사업 방식에서 다년간 지원사업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나 중장기창작지원이 다년간 지원사업의 예인데 문학 분야, 시각예술분야 등 타 분야에서도 이런 다년간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장해 나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현장을 존중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기반을 둔 사업 방향 재설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 창작산실이나 중장기창작지원과 같이 약간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재설정을 통해서 사업의 차별성을 명확히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방식 적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 기반을 조성하거나 문화예술 후원단체와 우리 보조사업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비재정적인 지원방식들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과 관련해서는 예술현장과 함께 호흡을 한다는 관점에서 예술계 담론과 현장 의제가 모이는 플랫폼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비평 활동에 활기를 더하고, 예술계 담론과 현장의제가 모이는 건강한 플랫폼을 예술위원회가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르코 웹진이나 오프라인 매체 등 이러한 웹진을 통해서 위원회 활동, 소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들을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술 현장 소통의 일상화” 관련해서도 예술인참여사업운영단이나 성과 공유회 등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8쪽입니다.

예술 영역을 “넓 - 게”는 기존 장르지원에서 더 확장되는 다원예술 분야 등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술 북돋기”라고 해서 기존 장르별 지원체계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유형의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올해 기초예술다양성증진지원이 10억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22년과 2023년, 2024년 지속적으로 볼륨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도 우리 비전2030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시드머니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확대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예술지원에서는 그동안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예술 전시지원 등에서 건축 분야가 활발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건축 기획전시 등에 대한 수요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과 기술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47억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세계로 도약 지지하기”입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해외 예술교류 거점을 확대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국제교류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부분

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3의 예술가의 미래를 “든/든/히”는 예술인력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술가와 단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예술인의 성장단계를 제시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한다고 해서 성장단계를 제시하고 단계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공기관에서 공급 중심의 지원사업 방식이 아니라 예술가 주도로 본인의 역량을 성장하기 위한 자율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폐지된 AYAF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분야별 경력단계별 교육체제와 관련해서도 무대 예술 전문교육 중심의 재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재교육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체제 자체를 다시 재설정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수단원 사업이 2021년도에 확대가 되는데요. 그런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창작지원 등에 있어서 사업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모여졌고 자원배분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진 안을 가지고 2022년도 예산 작업은 1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이 나왔던 전문 직무제의 도입이나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 그리고 업무의 재배정 등의 작업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일반회계와 문예기금 간의 역할 분담을 논의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관광자원활성화에 있는 재교부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이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협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체부와 이 내용들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창작지원 관련해서 “아르코창작음악제를 어떻게 개편하겠다.” 아니면 “다양성증진지원을 어떻게 확대하겠다.”라는 이슈들에 대해서 현장과 공론화하는 작업들을 2021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5)번의 분야별 사업 계획은 각 장르별로 있었던 내용들의 요약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희경 위원님께서 창작사업운영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속연주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통예술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원화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서양음악과 국악의 다양한 융합과 혼종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흐름에 비추어봤을 때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간략하게 보고만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위원님들께서 과정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담당 과장도 배석해 있으니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요약하자면 여기에 따라서 일단 2021년 1월 달에 2022년 예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주시면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롭게 짜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아마 7기 위원님들 임기 중에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조직개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금 일반회계 역할분담 등은 끊임없이 부족한 재원을 채우고 사업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관되는 일반회계 사업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또 어떻게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색깔로 입힐 것인가? 그리고 기금고유 사업은 어떻게 창작사업으로 확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현장과 상의를 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장은 창작의 확대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장과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가는, 그리고 이것은 앞서 논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과 합쳐지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될 것입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고생을 많이 하셨고 완성본도 보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일단 저는 의견을 하나 드리면, 사실 굉장히 방대한 보고서를 많은 위원님들과 특히 사업혁신TF에 참여하신 분들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회의자료 56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우리 내부 구성원이 아니라 외부 현장 예술가가 본다고 했을 때 원래 보고서보다도 임팩트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저는 이것에 대해 디자인을 붙여서라도..... 과정이나 원보고서는 양이 엄청나잖아요? 저도 하루 종일 봤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비전을 왜 또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르코2020비전과 차이가 뭐가?” 그런데 우리가 원보고서를 매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변합니다.”라는 것을 다른 워딩으로 내놓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가면 일을 하고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내용은 많아요. 그것에 대해 예산이 들더라도 그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아는 내용들처럼 되어 버리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전문가들과 하셔서 예술가들이 “실제 이렇게 변하는구나.” 혹은 “가치 패러다임이 바뀌는구나.”를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 작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의 이름이 사업혁신TF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페이지가 나올 때는 뭐라고 끝났느냐 하면 ‘창작지원사업 개선(안)’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저희 위원회가 갖고 있는 모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르코의 위원이 반 이상 참여한 사업혁신TF면 이것은 아르코의 전체의 사업혁신TF라고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창작지원사업TF로 보고서가 끝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믹스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장르의 지원사업 내용으로 구체화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오전에 제가 강조를 했지만 이 자료가 사업혁신TF지만 전체 아르코의 사업이 아니라 창작지원 사업이었다면 창작지원 사업의 예산과 볼륨..... 이 자료에는 어떤 데이터도 없어요. 전체 아르코 재원의 예산으로 얼마나 쓰는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전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입장도 있었겠죠. “아르코의 모든 사업이 창작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토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전략적 페이지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페이지를 썼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작지원 사업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이 자료 안에 엄청나게 담겨 있어요.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47억은 저희가 아니라 문체부가 뉴딜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위험한 예산이거든요. 우리 페이지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모호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 대토론회를 할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기술융합과 관련된 것은 그때도 워크숍을 제안했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서 기존의 오류들을, 준비가 안 된 기술의체를 공급하는 사업. 그래서 돈을 쓰고 욕을 먹지 않고 예술가치 중심으로 기술융합을 하는 방법론을 찾는 프로세스 자체를 리빌딩 하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우선 분리를 해서 창작지원 개선 문제와 사업혁신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예, 애초에 사업혁신TF가 발족할 때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첫출발은 장르 중심의 창작분야에 집중해서 논의를 해 보자는 각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부서도 창작지원 2개의 본부가 중심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혁신의 큰 틀에서 다 같이 연결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관점은 장르 소위원회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까지 창작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본적이 없어서 일단 창작 쪽 중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단순히 창작지원 사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들이 정리되면서 폭이 넓어진 개념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기술주도형으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한 현장의 인식들이 너무 팽배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서 예술중심의 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현장에서 워낙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술과 현장과 함께 만들어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요약의 문제잖아요? 원본은 좋은데 이렇게 요약을 해 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용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현장과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공고하게 하자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이 부분의 페이퍼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 최종 보고서를 드리기 전까지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페이퍼를 요약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오전에 논의했던 위원회 전체적인 방향과도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위원회의 입장이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짧게 말씀드리면 리워딩은 내부 사람이 쓰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작성하셨던 것이 아까워서 못 날려서 그런 겁니다. 디자이너나 전문가와 같이 작업을 하세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쓴 페이퍼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요. 철저하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신 대로 한다면 비전으로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리면 되고요.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창작지원 혁신에 대한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강윤주 위원

- 참고로 이원재 위원님이 보고서를 쓰는 데는 거의 귀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자문을 받으시면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창작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혁신과의 간격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원재 위원이 얘기한 핵심은 관점 자체를 수용자 관점으로 놓았을 때 설명도 쉬워지지만 원래 내용도 강화되고 강조된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이어그램을 보강하고 아주 손쉬운 용어여야 하고 보는 즉시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설명이 단순하면서도 명쾌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결과물을 환류해서 공유하는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윤주 위원님께서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윤주 위원

- 제가 구구절절 하게 하던 얘기. 그러니까 예술위가 언제나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어필하지 못한다는 연장선상의 얘기인데요. 지금 내용은 현장예술인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니까 용어를 바꾸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그램 등을 살리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원재 위원이 쓴 여러 가지 보고서를 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만드시니까 자문을 얻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보고서를 1차적으로 마무리 하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작업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보고서를 보셨겠지만 기존에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거나 예산을 확장한다는 것보다는 기존 사업에 대한 운영 형태를 현장 중심으로 맞추는 것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장에 채용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2022년도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앞에서 정기공모 사업을 보고 드렸듯이 2021년도 사업은 대부분 확정된 단계가 많고요. 그래서 이 논의는 2022년도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적용시킬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9월 달에 정기공모 사업이 나갈 때 적용될 확률이 높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현장의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면 기초 장르에 대한 예산 확대 부분들을 중점으로 고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지원심의 결과보고와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결과보고와 2022년도 창작지원사업 운영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3건의 보고가 또 남아 있습니다.

제9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8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8차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등 3가지 보고를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시는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 부장님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초에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열렸고요. 이 소위원회에서는 현장소통 소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안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 당시에는 1월에 지역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르크현장 대토론회 세션에 대해서 발제자나 토론자 진행현황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아르크현장 대토론회 세션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역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12월 말에 찾아가는 지역간담회를 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차 정책혁신 소위원회도 역시 12월 3일에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르크현장 대토론회 세션에서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언을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박종관 위원장

- 오디오가 안 들리네요.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알겠습니다.

아르크 현장대토론회 때 이 내용 그대로 발제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르크 현장대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해 세션을 정리하는 자리였고요. 발제나 토론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 지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 위원장님 세 분께서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홍태림 위원

-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토론회 때 모 선생님께서 ‘막두배 즐기기’ 콘텐츠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다보니까 과거 예술위 관련해서 성희롱·성폭력 전력이 있던 분들의 콘텐츠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방향성이 없으니까 디테일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부서 쪽에 확인을 해서 살펴보니 그런 콘텐츠가 8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8개는 비공개 처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르코40주년 행사를 다음에 하게 될 텐데 기억하고 기록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을 40주년 행사 안에 만들 것이고요. 이번에 비공개 처리한 게시물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 선생님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따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올해 후원인 대상에 예술의 전당 사장이 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신 게 있어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 쪽도 초안을 받은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고 답변을 달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 위원장님의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답변을 달아 드리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그 분께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간담회가 코로나 때문에 1월로 미루어졌는데요. 2.5단계가 유지되는 게 결정된 상황인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장 모임이 가능한 시점까지 기다리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가닥을 내일 현장소통 회의 때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오전 발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을 포함한 9개 권역에서 80여명의 예술인들과 만나게 될 텐데요. 기초와 광역, 중앙을 아우르는 거버넌스의 협의구조를 임시적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께서 지적하신 8개 콘텐츠에 대한 비공개 처리라든가 40주년에 반영해서 의미나 적용방식이나 의미 같은 것에 대해 후속 작업을 하자는 것에 대한 제안은 받아들여야 할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술인후원대상 문제도 조속히 답변을 작성해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1월에도 보장을 할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회의를 준비해서 개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내용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논의 사항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토론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팬데믹 시대의 문화예술계 공정보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급하게 열었습니다만 내용이 충만 했고 현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 논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발제나 논의의 방향을 잡을 사람이 필요한데 이 모임을 주도했던 정유란 위원님이 계신가요?

○정유란 위원

- 저희가 12월 21일 월요일 2시부터 코로나19대응 TF에서 팬데믹 시대의 문화예술계 공정보상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급하게 이에 대해 토론회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처 정책혁신부가 고생이 많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급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런 토론회가 지속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코로나19대응TF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이나 매뉴얼 관련해서 뭔가를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봐 주셔서 내용들은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1부는 현장에서의 피해사례 부분으로 공연예술분야에서 취소된 사례들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2부에서는 공공 쪽의 축제나 기관에서 대응했던 사례 중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만한 사례들을 찾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제 쪽에서는 의정부음악극축제와 서울거리예술축제가 대응을 잘 했던 사례라고 판단이 돼서 발표를 요청 드린 부분이고요. 한문연의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같은 경우에 보상안이 최소한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혁신부 조강주 연구원님이 아르코 쪽의 사례하고 전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토론회가 끝나고 문의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서 이후 단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 정책제안 및 자유토론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예를 들어서 계약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김상철 선생님의 제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솔루션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을 지역마다 예술인 회의나 예술인 모임을 통해서 진행해 보자는 제안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대응TF가 12월 말까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에 포함시켜서 반영하는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회를 지금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론화가 될 수 있는 장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시작은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논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2021년도 공모선정 결과가 발표되고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지금 나왔던 논의 내용들 중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것들이 이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시급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나온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소하게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반영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라서 대책을 못 세우고 흘러간 것이 있는데요. 한번 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내년에도 유사하게 벌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부분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공모가 나와서 안내가 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사무처에서 시급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전체적으로는 후속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많이 비어있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난 여름 즈음에 피해액이 얼마라고 발표한 이후로 정확하게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 피해의 총액 산정 등이 불투명합니다. 지금 데이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 피해 취소 사례를 배경으로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범위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빨리 도출해 나가야 하거든요. 지금 사례로는 축제도 좋고 공공의 사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논의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 지원사업 내에서 즉시 구현할 수 있는 것들과 여타 다른 기관에 제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논의로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주셔야 합니다. 다행히 저희한테는 코로나19대응TF가 있으니 이 TF가 받아서 논의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의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는데요. 그렇다면 거꾸로 정유란 위원님께는 “그렇다면 위원회가 어떤 것들을 급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정유란 위원

- 일단 현장에서는 이 토론회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취소 사례에서 빈도수가 많이 나타난 것이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연의 취소 사례에서 지자체마다 제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문연의 발표 자료에 보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문체부와 예술위와 끊임없이 소통을 진행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에 포함된 문

예회관이나 포함된 예술단체의 경우 보상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예위에서 기본적으로 권고안 같은 것을 마련해서.....사실 코로나19 TF에서 초기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최소한의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서 중앙에서 권고할 수 있는 안들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라는 것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때 토론회를 했던 주된 내용은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에서 초청공연이나 일반 대관을 했을 때 피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사업 지원에서 녹일 수 있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의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은 불가항력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등 2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2020년도에 활동했을 때는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충족되어 다행의 여지가 있지만, 2021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더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으로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산의 범위를 넓혀 준 범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실제 자문회의를 통해서 얻었던 생각은, 아까 정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어디에서는 최대한 보상을 해 주려고 하고 어디에서는 그냥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없었던 일로 하는 등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문제되는데요. 저희 예술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아르코예술극장은 이렇게 해왔다는 내용을 자꾸 확산시켜서 간접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추가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 전에 한문연과 단체 그리고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포함될 텐데요. 예를 들면 방방곡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데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근거해서 손해를 인정해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나 문예회관에서는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문연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 공연 몇 달 전까지 계약을 안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공극장이 아닌 데와 했던 계약이 파기된 부분들은, 사실 아까 정창호 부장님이 문화부의 역할이나 행정부서의 역할과 저희의 사례를 가지고 논의하는 테이블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실 지금 자영업자의 문제도 비슷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눠서 구체화 시키는 프로세스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방방곡곡은 그렇게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예술단체 지원금은 저희가 올해 보조금 정산의 기준을 확대하면서 해결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흔히 말하는 민법 영역에 있는 부분들은 국가나 행정기관과 더 논의를 해서 이런 피해가 한쪽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논의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논의를 이어가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드리면, 일단 이 토론회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TF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 과정에 이게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 직전까지 코로나 TF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느냐 하면, 사실 해외 사례를 정책혁신부의 구성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리서치를 하셨어요. 해외의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정책적 제안도 초별적인 수준에서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협력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가 일단 1월에 지금 나와 있는 페이퍼를 아르코의 의견서, 형식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적으로 내놓는 의견서를 1월 달에 1차 작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서에 지금까지 나온 방향적인 원칙의 가이드라인부터 계약이나 매뉴얼에 적용할 것까지도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발표하고 그 의견서를 공공기관 등에 모두 보내는 겁니다. 저는 언론에도 해외 사례까지 포함해서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음 단계는 공론화의 장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이번 토론회에서도 제일 많이 제안되었던 것이 꼭 답을 주지 않더라도 예술계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눈덩이처럼 키워가자.” 왜냐하면, 의견을 통해서 좋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지금은 뉴딜이나 코로나대책 재정에서도 예술계가 패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번 논의의 제안사항까지 포함해서 1차는 1월 말 정도로 놓고 위원장님이 발표하시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사회적으로 내놓는 의견서. 그리고 그 내용에는 문체부라든지 질병센터 등에 예술계 상황에 대한 의견서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TF에서 1월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월 본회의 때 보시고 보완해서 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추가 보완하거나 중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국면에서 예술정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현장소위나 온라인으로 가져가자는 제안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요. 12월 21일 토론회에서 논의된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첩된 과정에 놓여 있는 예술현장의 구구절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 점검을 해 보면 방방곡곡을 포함해서 표준화 되어 있지가 않고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처장이 예로 든 것처럼 계약서 작성 등을 미루고 편법을 찾아가면서 이른바 피해가 발생한 현장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장예술계는 어떠한 대응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범위를 정하지 말고요. 이것은 문체부와 지자체에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업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거라면 제도를 찾아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술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곳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밖에 없으니 위원회가 주도하여 문체부, 지자체 혹은 전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의견서와 같은 형태의 사회적 과장을 담고 공론의 장을 만들고 의견을 내고 반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메시지를 내자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논의해 나갈 부분들은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필요하다면 TF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간다는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면 추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즉시 움직여야 할 것 같고요. 코로나 TF에서 반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초안을 만들고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1월 위원회에서 초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늦어지면 서면의결이라도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 반향과 이를테면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기자회견 형태나 사회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함께 연구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모든 의결사항과 보고사항 그리고 논의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올해 2020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12월 위원회에서 꼭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1월 정기위원회 일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사무처장께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마지막 금요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1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정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7.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긴 시간 회의를 잘 마칠 수 있고 성과가 큰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9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회의종료)

